

IMF 경제위기 전후의 대학생의 음식소비 실태의 변화

서정희[†] · 홍순명* · 김현주* · 양정아* · 염수경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The Change in Undergraduate Students' Food Consumption Behavior due to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Jeong-Hee Seo,[†] Soon-Myung Hong,* Hyun-Ju Kim,*
Jeong-Ah Yang,* Su-Kyung Yeu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Food & Nutrition,*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ABSTRACT

This paper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food consumption behavior of 733 undergraduate students due to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After the economic crisis, undergraduate students in Ulsan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 intake frequency of almost all foods except rice, kimchi, the Korean tea and the frequency of fast food restaurants used compared with before the economic cri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economic crisis significantly effected the food consumption and restaurant use behavior of the undergraduates in Ulsan.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4) : 568~574, 1999)

KEY WORDS :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 food consumption · restaurant use.

서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IMF 경제위기는 너무 심각하고 또 급격하게 불어닥침으로써 우리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소비생활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커서 소비재의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었다. 초국가적으로 경험한 경제적 위기는 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예상하지 못한 가계의 재정요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조사한 Varcoe(1990)의 연구에 의하면 새 옷 구매와 교양활동을 하지 않는 긴축재정행동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서울 중심부의 빈민가를 연구한 박영숙(1988)과 생산직 노동자가계를 대상으로 한 팽경인(1988)

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출규모를 줄인다고 하였으며, 특히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1988년도 가계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한 심영(1993)의 연구에서도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는 오락비나 보험료와 같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지출비목 뿐만 아니라 식비, 주택, 연료비와 같은 기본적인 비목에 관한 지출도 삭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식비를 줄인다는 미국의 연구들이(Courtless 1971; Hayes 1989) 있다.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관한 손상희(1995)의 연구에서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북도 도시가계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황덕순(199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처행동의 하나로 지출을 줄이고 있었고, 황덕순의 다른 연구에서도(1995)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행동의 하나로 지출을 줄이고 있었다. 최자령·임정빈(1996)의 연구에서는 도시가정은 재정적 사건에 대한 대처 전략의 하나로 절약구매를 한다고 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을 조

[†]Corresponding author : Jeong Hee Seo,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Welfare, Ulsan University, # 29 Muguh 2-dong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 052) 259-2365, Fax : 052) 259-2888
E-mail : jhseo@uou.ulsan.ac.kr

사한 바에 의하면(이종성 1998) 35.1%가 사서 먹는 우유나 야구르트를 그만 두었다고 하였고, 86.2%가 외식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없었다고 하였다. IMF 경제위기는 대학생의 음식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 전후의 음식소비와 음식점 이용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 전과 후에 음식소비와 음식점이용실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경제위기와 음식소비행동간의 경험적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음식소비에 관한 가계경제이론과 식생활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는 가계복지정책, 식량정책 및 음식점 마케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이 논문은 울산의 유일한 대학인 울산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성별, 학년, 전공계열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3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73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에 대학생들의 음식소비와 음식점 이용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5명의 대학생들을 선정하여 소규모 포커스그룹 면담(small focused group interview)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자주 먹는 음식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사전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조사대상 음식과 음식점을 육류 5, 계란 1, 콩류 2, 생선류, 6, 해조류 2, 곡류 7, 채소류 6, 과일 8, 찌개류 4, 인스턴트 음식 6, 음료 5, 주류 4, 음식점 7을 조사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대상 항목에 대하여 '안 먹음 1점', '1년 3~4회 2점', '월 1회 3점', '월 2~3회 4점', '주 1~2회 5점', '주 3~4회 6점', '매일 7점'을 부여하였다. 조사시점은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97년도 전반기와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98년도 3월 현재에 조사대상음식을 어느 정도로 섭취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97년도 전반기의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98년도 3월에 1년 전의 것을 회상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조사대상 음식물수준이 IMF 경제위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PC¹를 이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3.1%로 남학생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은 25세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고 23-24세가 24.6%, 22세가 21.4%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로 31.3%를 차지하였고 기독교는 22.1%를 차지하였다.

주거상태는 자택이 69.4%, 기타가 30.6%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이하로 30.1%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46.6%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32.6%, 국졸이하도 20.8%를 차지하였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9.4%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은 20.6%, 생산직은 21.1%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취업한 경우가 36.5%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적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3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0만원 미만으로 25.9%, 120~150만원이 19.5%로 가장 적었다.

한달 용돈의 크기는 10~20만원이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30만원으로 26.8%를 차지하였다. 소득유입시기의 불규칙성을 보면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37.9%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가 33.3%,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28.8%를 차지함으로써 3/2 정도는 소득유입시기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가 65.4%로 가장 많았고, '항상 틀리다'도 21.4%나 되었다.

결과 및 고찰

Table 2에는 IMF 이전인 1997년 초와 IMF 이후인 1998년 3월에 대학생들의 음식소비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차이 및 paired t-test를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sample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Sex	Male	238	46.94
	Female	269	53.06
Age	Less than 21	98	19.25
	22	109	21.41
	23 - 24	125	24.56
	25 and over	177	34.77
Housing status of respondents	Home owner	354	69.41
	Other	156	30.59
Religion	No religion	232	46.57
	Buddhist	162	31.32
	Christian	111	22.12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or less	151	30.08
	High school	258	51.39
	College degree and over	93	18.53
Educational level of mother	Elementary school or less	106	20.4
	Middle school	166	33.5
	High school and over	237	46.1
Occupation of father	Professional	98	20.63
	Sales	90	18.95
	Worker	100	21.05
	Official	187	39.37
Occupation of mother	Respondent employed	186	36.54
	Respondent not employed	323	63.46
Family income(monthly)	Less than 1,200,000won	132	25.93
	1,200,000 - 1,500,000	99	19.45
	1,500,000 - 2,000,000	110	21.61
	2,000,000	168	33.01
Amount of discretionary expenditure	Less than 100,000won	55	10.83
	100,000 - 200,000	246	48.43
	200,000 - 300,000	136	26.77
	300,000	71	13.98
Irregularity of the date of income taking	Same	191	37.90
	Almost same	145	28.77
	Not same	168	33.33
Irregularity of the amount of income taking	Same	67	13.27
	Almost same	330	65.35
	Not same	108	21.39

*Total n is not same because of missing value

1. IMF 경제위기 이전의 대학생들의 음식소비 수준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대학생들이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은 쌀밥(평균 6.3)과 김치(평균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김, 콩나물, 라면, 커피, 콜라 등의 평균은 5점대로 1주일에 1~2회 이상 3~4회 이하로 먹고 있었다. 돼지고기 구이, 두부와 순두부, 콩, 미역, 잡곡밥, 빵류, 시금치, 상추, 오이, 무, 굴, 사과, 육류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산차, 쥬스류 등의 평균은 4점대로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하로 먹고 있었다.

쇠고기구이, 쇠고기국, 돼지고기찌개, 닭고기, 고등어, 오징어, 국수류, 감자, 딸기, 감, 배, 토마토, 생선찌개, 햄, 소시지,

냉동만두, 사이다, 소주, 맥주, 롯데리아, 커피숍 등은 월 1회 이상에서 월 2~3회 이하로 소비하거나 이용하고 있었다. 생선회, 조기, 갈치, 꽁치, 떡류, 고구마, 오렌지, 바나나, 생선통조림, 맥도날드, KFC, 배스킨라빈스31, 피자집 등은 1년에 3~4회 이상에서 월 1회 이하로 소비하고 있었다. 냉동피자, 양주, 막걸리 등은 1년에 3~4회 이하로 먹고 있었다.

2. IMF 경제위기 이후의 대학생들의 음식소비 수준

IMF 이후에도 대학생들이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은 쌀밥(평균 6.24)과 김치(평균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김, 커피 등의 평균은 5점대로 1주일에 1~2회 이상 3~4회

Table 2. Food consumption and restaurant use by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Before IMF	After IMF	Differences	t value
Beef food	Baked beef	3.44(1.30)	3.06(1.33)	0.38	11.47***
	Beef soup	3.72(1.22)	3.37(1.29)	0.35	10.60***
Other meat food	Baked pork	4.01(1.13)	3.73(1.19)	0.28	8.52***
	Pork chigae	3.54(1.46)	3.31(1.43)	0.23	6.88***
	Chicken	3.59(1.13)	3.25(1.18)	0.34	10.16***
Egg	Egg	5.58(1.15)	5.37(1.20)	0.21	6.98***
Bean	Tofu	4.84(1.29)	4.57(1.42)	0.27	7.77***
	Soy bean	4.23(2.04)	4.04(2.08)	0.19	4.56***
Fish food	Raw sliced fish	2.72(1.19)	2.38(1.14)	0.34	10.42***
	Yellow croaker	2.82(1.33)	2.50(1.30)	0.32	9.59***
	Hair tail	2.82(1.24)	2.49(1.22)	0.33	9.90***
	Mackerel	3.41(1.24)	3.06(1.26)	0.35	10.03***
	Mackerel pike	2.53(1.34)	2.29(1.28)	0.24	7.65***
	Squid	3.79(1.17)	3.44(1.23)	0.35	9.80***
Laver · sea mustard	Laver	5.33(1.36)	5.11(1.49)	0.22	5.76***
	Sea mustard	4.06(1.23)	3.85(1.31)	0.21	6.20***
Grain food	White rice	6.28(1.70)	6.24(1.74)	0.04	1.25
	Mixed rice	4.13(2.24)	4.09(2.30)	0.04	.93
	Noodles	3.97(1.48)	3.85(1.57)	0.12	3.30**
	Rice cake	2.84(1.23)	2.65(1.22)	0.19	6.51***
	Bread	4.52(1.40)	4.20(1.50)	0.51	7.82***
	Potato	3.82(1.41)	3.60(1.46)	0.22	6.29***
	Sweet potato	2.98(1.26)	2.74(1.28)	0.24	6.59***
Vegetables	Kimchi	6.89(.52)	6.86(.57)	0.03	1.77
	Bean sprout	5.03(1.13)	4.85(1.29)	0.18	4.90***
	Spinach	4.20(1.33)	4.05(1.41)	0.15	4.23***
	Lettuce	4.20(1.12)	3.99(1.24)	0.21	6.57***
	Cucumber	4.44(1.21)	4.17(1.34)	0.27	7.22***
	Radish	4.87(1.44)	4.68(1.51)	0.19	5.69***
Fruit	Citrus fruit	4.71(1.52)	4.19(1.54)	0.52	11.16***
	Apple	4.75(1.49)	4.37(1.55)	0.38	8.52***
	Strawberry	3.82(1.44)	3.60(1.51)	0.22	5.89***
	Orange	2.59(1.52)	2.22(1.40)	0.37	8.77***
	Banana	2.87(1.39)	2.54(1.36)	0.33	8.21***
	Persimmon	3.14(1.46)	2.76(1.41)	0.38	9.21***
	Pear	3.34(1.36)	2.98(1.38)	0.36	8.27***
	Tomato	3.53(1.61)	3.15(1.64)	0.38	8.26***
Chigae	Meat chigae	4.11(1.41)	3.80(1.42)	0.31	9.56***
	Fish chigae	3.75(1.52)	3.41(1.50)	0.34	9.56***
	Kimchi chigae	4.72(1.07)	4.58(1.15)	0.14	4.21***
	Soybean chigae	4.92(1.17)	4.81(1.27)	0.11	3.16**
Instant food	Fish can	2.25(1.59)	2.05(1.48)	0.20	6.13***
	Ramen	5.09(1.12)	4.93(1.35)	0.16	4.05***
	Ham	3.63(1.56)	3.31(1.57)	0.32	9.06***
	Sausage	3.05(1.67)	2.80(1.61)	0.25	6.98***
	Frozen pizza	1.84(1.24)	1.58(1.08)	0.26	8.21***
	Frozen dumplings	3.38(1.38)	2.90(1.38)	0.48	11.61***

Table 2. Continued

		Before IMF	After IMF	Differences	t value
Beverage	Coffee	5.63(2.09)	5.50(2.11)	0.13	2.57*
	Cola	5.09(1.52)	4.73(1.64)	0.36	8.86***
	Cider	3.68(1.90)	3.42(1.86)	0.26	6.39***
	Korean tea	4.59(1.80)	4.55(1.83)	0.04	.75
	Juice	4.86(1.49)	4.49(1.58)	0.37	8.39***
Drinks	Soju	3.76(1.72)	3.53(1.69)	0.23	5.09***
	Beer	3.83(1.55)	3.42(1.51)	0.41	9.18***
	Western liquor	1.46(.91)	1.33(.79)	0.13	4.96***
	Tak ju	1.69(1.11)	1.54(1.0)	0.15	4.85***
Fast food restaurant	Macdonalds	2.48(1.50)	2.07(1.32)	0.41	9.40***
	KFC	2.09(1.32)	1.73(1.12)	0.36	9.27***
	Baskin Robbins 31	2.45(1.41)	1.79(1.10)	0.66	13.11***
	Lotteria	3.27(1.45)	2.72(1.39)	0.55	12.41***
	Coffee shop	3.66(1.64)	2.81(1.55)	0.85	15.11***
	Pizza house	2.25(1.18)	1.79(1.01)	0.46	11.65***

이하로 먹고 있었다. 두부와 순두부, 콩, 잡곡밥, 빵류, 콩나물, 시금치, 오이, 무, 굴, 사과,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콜라, 국산차, 쥬스류 등의 평균은 4점대로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하로 먹고 있었다.

쇠고기구이, 쇠고기국, 돼지고기구이, 돼지고기찌개, 닭고기, 고등어, 오징어, 미역, 국수류, 감자, 상추, 딸기, 토마토, 육류찌개, 생선찌개, 햄, 사이다, 소주, 맥주 등은 월 1회 이상에서 월 2~3회 이하로 소비하고 있었다. 생선회, 조기, 갈치, 꽁치, 떡류, 고구마, 오렌지, 바나나, 감, 배, 생선통조림, 소시지, 냉동만두, 맥도날드, 롯데리아, 커피숍 등은 1년에 3~4회 이상에서 월 1회 이하로 소비하거나 이용하고 있었다. 냉동피자, 양주, 막걸리 KFC, 베스킨라빈스31, 피자집 등은 1년에 3~4회 이하로 소비하거나 이용하고 있었다.

IMF 경제위기 전과 후 모두 쌀밥과 김치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온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주요 상용식품을 조사한 황선희 등(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3. IMF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대학생들의 음식소비 수준의 차이

Pared t-test 결과를 가지고 대학생들의 음식소비수준을 IMF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면 쌀밥, 잡곡밥, 김치 및 국산차를 제외하곤 이 논문에서 조사한 모든 음식과 패스트푸드점의 소비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밥, 잡곡밥, 김치, 국산차의 경우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p < .01$ 수준에서, 국수류와 된장찌개는 $p < .01$ 수

준에서, 쇠고기구이, 쇠고기국, 돼지고기구이, 돼지고기구이, 돼지고기찌개, 닭고기, 계란, 두부와 순두부, 콩, 생선회, 조기, 갈치, 고등어, 꽁치, 오징어, 김, 미역, 떡류, 빵류, 감자, 고구마, 콩나물, 시금치, 상추, 오이, 무, 굴, 사과, 딸기, 오렌지, 바나나, 감, 배, 토마토, 육류찌개, 생선찌개, 김치찌개, 생선통조림, 라면, 햄, 소시지, 냉동피자, 냉동만두, 콜라, 사이다, 국산차, 쥬스류,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맥도날드, KFC, 베스킨라빈스31, 롯데리아, 커피숍, 피자집 등은 $p < .001$ 수준에서 IMF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소비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에 대처하기 위하여 식비도 줄인다는 박영숙(1988)의 연구와 팽경인(1988)의 연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식비를 줄인다는 미국의 연구(심영 1993; Courtless 1971; Hayes 1989) 등과 일치하나, 식비와 같은 비임의적인 소비보다는 임의적인 소비가 부채부담으로 인하여 더 증가할 것이라는 Wyss & Helferich(1986)의 연구와 소비자부채는 생필품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임의적인 소비지출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Toal(1986/1987)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심영(1993)은 소비지출패턴은 부채 외에도 경제적 번영에 대한 가계의 낙관적 생각과 태도, 그리고 가계신용의 이용가능성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 부채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가계의 경우에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해석은 마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임의적인 소비지출 비율보다 식비와 같은 비임의적인 소비지출 비율이 더 감소하도록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식비에도 임의적인 요소가 있다

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음식소비와 음식점이용 빈도를 가지고 유추해보면 빵류, 꿀, 냉동만두, 맥주 등과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31, 롯데리아, 커피숍, 피자집 같은 패스트푸드점 등은 경제위기전보다 후에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임의적인 요소가 강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필품적인 특성이 강한 콩, 쌀밥, 잡곡밥, 국수류, 떡류, 김치, 콩나물, 시금치, 부,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커피, 국산차 등은 비임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커피는 감소폭이 적으나, 커피숍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와 막걸리의 경우 감소폭만을 보면 비임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섭취빈도의 평균이 낮기 때문에 특수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호가 형성되었고, 양주와 막걸리를 자주 소비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만 비임의적인 소비지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IMF 경제위기 이전에 비하여 이후에 쌀밥, 잡곡밥, 김치 및 국산차를 제외하곤 이 논문에서 조사한 모든 음식과 패스트푸드점의 소비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쌀밥, 잡곡밥, 김치 등과 같은 음식물 중에서도 가장 필수품적인 성격이 강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소비를 감소시킬 정도로 IMF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금리와 환율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및 취업에 대한 극도의 불안, 가계금융이용의 어려움 등은 대학생들의 음식소비빈도까지 감소시킬 정도로 극도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조사시기가 1998년 3월로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더 영향이 크게 나왔다고 본다.

경제위기가 음식물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생필품적인 특성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한 채소류 음식,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라면 등은 감소폭이 적게 나타남으로써 비임의적인 소비지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 등은 가장 많이 감소함으로써 임의적인 소비지출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종류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감소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피는 감소폭이 매우 작으나, 커피숍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주류중에서도 소주는 감소폭이 작으나, 맥주는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계비분석을 할 때는 식비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보다 상세하게 분류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닥친 시기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의 경우 패스트푸드점보다는 보다 필수품적인 성격이 강한 음식점이 더 전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산차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전에 비하여 섭취빈도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31, 롯데리아, 커피숍, 피자집 같은 패스트푸드점 등은 경제위기전보다 후에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가 외환위기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국산품애용이라는 애국심이 작용해서 국산차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외국업체와 제휴 또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이용빈도는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 직후 모 기업은 우리 기업은 순수한 우리 나라의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광고를 한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주부, 아동, 노인 등과 같은 다른 조사대상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섭취한 음식의 빈도와 외식의 빈도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비가 총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의 경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층별 비교연구, 실직자가계가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파악하고 실직자가계 및 저소득자가계 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박영숙(1983) : 도심지 빈민의 경제적 적응방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상희(1995) :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 133-143
 심 영(1993) :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 29-50
 이기춘(1988) : 소비자교육학, 서울 : 하우
 이종성(1998) : IMF 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문제연구* 21 : 55-74

- 최자령·임정빈(1996) :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 175-189
- 팽경인(1988) :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덕순(1993) :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182-194
- 팽경인(1995) :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희·김정인·승정자(1996) : 한국인 남자대학생의 주요 상용식품의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분석. *한국영양학회지* 29(3) : 278-285
- Courtless JC(1971) : The effect of consumer credit on food expenditures. *Family Economics Review*. March, pp.22-24
- Hayes DJ(1989) : Incorporation credit in demand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 : 1-20
- Toal WD(1986/1987) : Consumer debt : How severe is the problem? *Review of Business* 8 : 4-9
- Wyss D, Helderich A(1986) : Household indebtedness and consumer spending, *Data Resources U.S. Review*. October, pp.18-21